

여수 돌산~경도 해상케이블카 건설

6성급·4성급 호텔, 무인도 2곳 콘도·쇼핑몰·인공해변 설치 2020년 상반기 부지 조성...2024년 말 공사 마무리 이듬해 개장

여수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가 건설된다. 또 여수 경도 관광단지엔 호텔 2곳과 함께 인근 무인도 2곳에 특화된 빌라 콘도가 들어선다. 미래에셋이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 리조트로 건설하는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20일 경도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면적은 기존 212만7000㎡에서 214만3000㎡로 1만6000㎡가 늘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미래에셋이

미려한 경도 마스터플랜에 따라 경도 인근 무인도인 송도와 노도 지역을 개발지역에 편입해 특화된 빌라 숙박시설을 신축하기로 한 신규사업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비는 애초 1조5000억원으로 알려졌다. 나 1조3850억원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6성급, 4성급 럭셔리 워터파크 호텔이 들어선다. 당초 거론됐던 영국의 대관람차인 런던 아이 같은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돌산과 경

도를 잇는 2km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돌산과 오동도 인근 자산공원을 운영하는 케이블카와 연결할 것인지, 따로 돌산과 경도를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글램핑장 앞에 인공해변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쇼핑몰과 워터파크 등도 들어선다. 광양민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경도 개발계획 변경안을 전남도 해당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승인되면 5월 중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사업시행자인 미래에셋은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부지조성에 들어가 오는 2024년 말 관광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5년부터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개장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 경도와 신월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수 신월도와 경도를 연결하는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는 연장 1.52km, 폭 13.8m, 아차교·사장교로 되어있으며, 예정사업비는 1154억 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미래에셋이 20% 부담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수 경도 전경

생산자물가 5개월만에 '반등'...농산물 하락·공산품 상승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농림수산물 물가는 떨어졌으나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물가가 올라간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9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달 생산자물가는 103.81로 전월보다 0.1% 상승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다 지난달 반등한 것이다. 같은 관계지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생산자 물가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1~2개월 이후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소비자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로 공산품 가운데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경우(6.1%), 휘발

유(4.5%), 등유(4.7%)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3.4% 올랐다. 지난해 9월(3.4%)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1차 금속제품도 0.3% 올라갔다. 다만 D램

다, 출하량이 늘어난 딸기가 전월보다 19.9% 하락했고 배추 물가도 18% 내렸다. 수박(-15.6%), 피망(-23.5%) 등도 수요 감소로 큰 폭 떨어졌다. 축산물도 닭고기(-8.6%), 돼지고기(-3.5%) 등을 중심으로 3.7% 하락했고, 수산물도 1.7% 내려갔다. 서비스 물가는 전월대비 0.2% 올랐다. 카드사의 수수료를 인하로 금융 및 보험업은 1.8% 하락한 반면

건설엔지니어링(9.3%) 등이 상승하는 등 사업 서비스가 1.1% 오른 영향이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지난 2017년 8월(-1.9%) 이후 1년 6개월 만에 나뉘기가 가장 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택시 부문이 6.0% 오르면서 운수 물가는 0.5% 올랐고, 아파트 관리비 상승의 영향으로 주거용부동산관리(10.1%) 등 부동산 부문도 0.5% 상승했다. 전력과 가스 및 수도 물가는 전월대비 0.1% 올랐다. 국내 출하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국내에 출하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만 아니라 수입상품과 서비스 가격까지 반영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99.73으로 보험세를 나타냈다. 서비스 물가는 전월대비 0.2% 올랐다. 카드사의 수수료를 인하로 금융 및 보험업은 1.8% 하락한 반면

국제유가 오름세에 생산자 물가 상승 전환
전기 및 전자기기 품목은 5개월 연속 하락
딸기(-19.9%), 배추(-18%) 등 농림수산물 ↓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로 금융·보험업 하락

(-6.9%), TV용 LCD(-1.5%) 가격 하락 등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는 0.4% 떨어져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농림수산물 가격은 3.0% 하락했

유병력자 실손보험, 10달 간 4.7만건에 143억원 지급됐다

금감원, 총 26만8000건 판매...50대 이상이 80%

지난해 출시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10개월간 100억원 이상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10개월간 총 11개 보험사가 판매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26만 8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가입 심사를 완화하고 가입연령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상품이 처음 출시된 지난해 4월에는 4만9000건이 판매됐고, 이후에는 감소세다. 지난 1월에는 1만9000건에 그쳤다. 병력 때문에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장년층에서 수요가 높았다. 가입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이 46.3%(1만2400건)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33.8%(9만1000건)로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80.1%다. 40대는 12.5%다. 10개월간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총 901억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합사가 776억원, 생명보험사가 125억원이다. 지난 1월까지 지급보험금은 14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 건수는 4만7000건이다. 생명보험사가 약 4000건에 대해 15억원을 지급했고, 손해보험사가 4만3000건에 대해 128억원을 지급했다. 수입보험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품 판매 초기인 만큼 향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보험상품은 출시 3년을 넘어야 지급보험금 추세가 안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뉴스

최장기 침체 비트코인...고점 대비 80% ↓

비트코인이 출시 후 10년 만에 가장 긴 슬럼프를 맞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J)에 따르면 현재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4000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격은 지난 2017년 12월 1만9800 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80% 넘게 하락했다. 미국 최대 거래소에서의 거래량도 15개월 동안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낸 적은 여러차례 있었다. 2011년에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95% 가량 추락한 적이 있다. 미운트프스 거래소 파산 신청과 마약 등을 불법 거래하는 실크로드 사이트의 폐쇄 이슈가 있었던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는 85% 가량 하락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2009년 출시 이후 가장 긴 침체에 빠지면서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WSJ은 시장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공개(ICO) 시장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업체 토큰데이터에 따르면 ICO를 통

해 조달된 자금은 2018년 120억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1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올해 실시된 50건의 ICO 중 거래가 지속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의 수익도 지난 15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전문가 보아즈 베사르는 "가장 큰 업체들만이 변동성 장세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업체들은 더 대형 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황기에 큰 수익을 올렸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은 시장 침체에 허리를 졸라매고 있다. 가상화폐 저장장치를 만드는 레저SAS의 에릭 리우백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을 감원하지는 않고 있지만 광고와 출장을 줄이고 있다"며 "우리는 18개월 후에도 회사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